

脈經 卷三 五臟의 虛實賊微邪에 따른 脈象과 病證에 對한 研究 III

成百萬, 朴 炅

圓光大學校 韓醫科大學 診斷學教室

A Study on the Pulse Conditions and Symptoms of Diseases Related with Pathogenic Factor of Deficiency Type, Excess Type, Zei Pathogenic Factor and Indistinct Pathogenic Factor of the Five Viscera in the Third Volume in the Maek Kyoung(脈經) III

Back-Man Sung, Kyung Park

Dept. of Biofunctional Medicine and Diagnosi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Background and purpose: Maek Kyoung(脈經) is a book written, compiled, and edited by Wang Hui circa 3 A.D. This book is the first technical book devoted to the diagnostics.

These are very important data but never make a special study and translate. so I hope this treatise can be great help to understand diagnosis study.

Methods: Maek Kyoung(脈經) consists of ten volumes, and the third volume consists of the five chapters, including inter-generation and inter-restriction of the five viscera and the six entrails and prognosis of diseases. This treatise is made up of principal, notes, study and conclusion, we tried to make a translation faithful to the original.

Results and Conclusion: Chapter 5 refers to three things. The first is relation between kidney and urinary bladder, the second is ordinary and extraordinary pulse condition of kidney, and the third is how to treat diseases related to kidney.

Key Words: Maek Kyoung, pathogenic factor, the pulse conditions and symptoms of diseases

1. 序 論

本 論文은 『素問』의 「陰陽應象大論」·「玉機眞藏論」·「平人氣象論」, 『靈樞』의 「本神」·「經脈」·「邪氣臟腑病形」, 『難經』의 「七難」·「十四難」·「十五難」·「二十四難」, 『中藏經』, 『金匱要略』의 「臟腑經絡先後病脈證第一」·「五臟風寒積聚病脈證病治第十一」등 篇에서 五臟六

腑의 脈診에 관계되는 內容을 拔萃하여 정리한 『脈經·卷之三』의 5篇을 研究한 것으로, 겨울이 腎水를 주관하는 季節이고 腎은 膀胱과 表裏關係에 있음을, 腎의 正常脈은 沈 하나 이와 같지 않은 것은 腎의 病脈임을, 겨울에는 만물이 閉藏되고 온갖 昆蟲이 冬眠하고 陽氣는 下降하고 陰氣는 上昇하는 계절이므로 治療할 때 發汗, 瀉下, 燒針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기면

變逆이 생긴다는 것 등을 論한 「腎膀胱部第五」로 구성되어 있다.

위의 論述들은 현재에도 『千金要方』, 『醫學入門』등 각종 診斷學 文獻에 내용의 全文 또는 要點이 拔萃 引用되는 중요한 資料이다. 이에 대한 연구로 중국에서는 『脈經校釋』, 『脈經校注』, 『脈經新解』, 『脈經精譯』 등이 있으나 簡字로 된 것도 있고, 견해가 한결 같지 않으며, 古文·白話 등으로 되어 있어 이해가 어려워 국역이 필요하고, 『脈經』이 中國 吳나라 사람 知聰에 의해 전해진 이후로 150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池田政一이 日本語로 해설한 『脈經』을 연구한 羅의 論文¹⁾이 있으나 校勘, 註釋이 결여되어 있어 약간은 미흡한 점이 있다. 이에 더욱 詳細한 研究가 필요하므로 아래의 方法으로 연구하여 診斷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II. 研究方法 및 資料

本 論文은 原文의 懸吐, 校勘, 註釋, 國譯, 考察, 結語의 順으로 研究하였다.

1. 本 研究의 原文은 『南宋何大任本』²⁾을 底本으로 하였으며, 작은 글자로 된 註文도 모두 收用하였다.

2. 懸吐는 傳來의 方法을 원칙으로 하였다.

3. 한 篇 가운데 필요에 따라 내용을 나누어 章名을 붙였다.

4. 校勘은 아래 <表1>의 文獻을 涉獵하였다.

5. 註釋은 有關 書籍에서 가장 적합한 것을 인용하여 國譯하였으며, 玉篇, 字典, 辭

典에서 引用한 註釋은 考察 등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이미 公認된 내용이므로 脚注를 省略하였으며, 俗字는 正字로 바꾸었고, 混用하여 쓰는 글자는 校勘을 생략하였다.

6. 本 研究에 使用한 符號로 校勘에는 ‘)’, 註釋에는 ‘()’, 引用文獻에는 ‘『』’, 引用篇과 論文에는 ‘[]’로 表示하였다.

III. 本論

第 5篇 腎膀胱部第五

第 1章 腎膀胱의 生理와 自然界와의 關係

【原文】

腎象木¹⁾하고 與膀胱合爲府라 膀胱은 爲津液之府(1)라 其經은 足少陰이요 足少陰은 腎脈也라 與足太陽으로 爲表裏라 足太陽은 膀胱脈也라 其脈은 沈이요 沈은 腎脈之大形也라 其相은 秋三月이요 秋엔 金王하야 水相이라 其王은 冬三月이요 廢는 春三月이요 囚는 夏三月이요 其死는 季夏六月이라 其王日은 壬癸요 王時는 人定夜半이라 其困日은 丙丁이요 困時는 禺中日中이라 其死日은 戊己요 死時는 食時日昃이라

其神은 志(2)요 腎之所藏者는 志也라 其主는 液이요 其養은 骨이요 其候는 耳요 其聲은 呻이요 其色은 黑이요 其臭는 腐요 其液은 唾(3)요 其味는 鹹이요 其宜는 酸이요 其惡는 甘이라

腎俞는 在背第十四椎요 募는 在京門(4)이라 膀胱俞는 在第十九椎(2)요 募는 在中極(3)(5)이라 橫骨(6)上一寸의 在臍下五寸前陷者中이라

右는 新撰이라

1) 羅敬燦; 王叔和 脈經의 文獻의 研究, 東國大學校 大學院, 서울, 1995

2) 王叔和; 脈經, 東洋醫學研究會, 大阪, 1981

〈表 1〉 校勘에 引用한 文獻 및 略稱

番號	書名	略稱	編著者	備考
1	脈經	脈經	何大任 校	東洋醫學研究會, 大阪, 1981
2		錢本	錢熙祚 校	大學書局, 臺南, 1985
3		華夏本	蔣力生 校注	醫經病源診法名著集成, 華夏出版社, 北京, 1997
4		大成本	張琨 等 校	中國醫學大成,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7
5		中醫藥本	吳承玉 等 注	中國醫藥科技出版社, 北京, 1999
6		廣本	葉氏 校	元 葉氏廣勤書堂刻本, 脈經校釋 再引用
7		繆本	繆希雍 校	明 繆希雍本, 脈經校釋 再引用
8		朱本	朱錫毅 校	清 道光 13年 朱錫毅 原刊 脈經真本, 脈經校釋과 脈經校注 再引用
9		黃本	黃紘 校	清 道光 23年 黃紘 校本, 脈經校釋과 脈經校注 再引用
10		廖本	廖積性 校	清 道光 廖積性本, 脈經校釋 再引用
11		張本	張柯 校	清 咸豐 張柯 重刊 脈經真本, 脈經校釋 再引用
12		周本	周學海 校	清 光緒 17年 周學海 校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北京, 1996
13		楊本	楊守敬 校	清 光緒 19年 楊守敬 刊本, 脈經校釋 再引用
14	王叔和脈經	四庫本	陳夢雷 等 編	醫部全書, 金泳出版社 影印, 서울, 1974
15		文光本	校著未詳	文光圖書有限公司, 未詳
16		全錄本	陳夢雷 等 編	圖書集成醫部全錄, 大成文化社 影印, 서울, 1986
17	脈經校釋	校釋	福州市人民醫院	清 周學海 校本,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4
18	脈經校注	校注	沈炎南	南宋 何大任 校本,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1
19	脈經新解	新解	陳欽銘	國立中國醫藥研究所, 板橋, 1995
20	脈經精譯	精譯	黃志傑	科學技術文獻出版社, 北京, 1999
21	難經本義	難經	滑壽	集文書局, 台北, 1982
22	中藏經	中藏經	華佗	江蘇科學技術出版社, 江蘇省, 1985
23	金匱要略	金匱	張機 (李克光 主編)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9
24	黃帝內經素問靈樞	素問	新校正本	中華書局聚珍仿宋版印, 臺北, 1992
25		靈樞		中華書局聚珍仿宋版印, 臺北, 1972
26	醫經病源診法名著集成 針灸甲乙經	中 甲乙	皇甫謐(黃龍祥 校注)	等 華夏出版社, 北京, 1997
27	醫經病源診法名著集成 諸病源候論	中 病源	巢元方	華夏出版社, 北京, 1997
28	備急千金要方校釋	千金	孫思邈(李景榮 校釋)	等 人民衛生出版社影印, 北京, 1998
	備急千金翼方校釋	千金翼		
29	黃帝內經太素	太素	楊上善	大星文化社, 서울, 1986

【校勘】

1) 腎象木 ; 「宛本」, 「錢本」, 「周本」엔 '腎象水'로 되어 있다. '木'은 '水'字的 誤字이다.

2) 第十九椎 ; 『校注』엔 '背第十九椎'로 되어 있다.

3) 募在中極 ; 「朱本」, 「張本」엔 '募在中'으로 되어 있다.

【註釋】

(1) 津液之府(진액지부) ; 膀胱의 別稱으로 水分이 모이는 곳이고 身體에서 水液代謝에 관련된 중요한 臟器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2) 志(지) ; 意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志라고 한다³⁾.

(3) 唾 ; 口液, 침 타

(4) 京門(경문) ; 膽經의 穴로 第 12肋骨端 章門穴에서 밖으로 빗겨 내려간 1寸 6分에 있는 穴이다.

(5) 中極(중극) ; 任脈의 穴로 臍下 4寸에 있는 穴이다.

(6) 橫骨(횡골) ; 腎經의 穴로 臍下 5寸에 있는 曲骨穴 兩傍 各 5分の 穴이다.

【國譯】

腎은 水를 본받고 膀胱은 腎과 相合하며 그 腑가 된다. 膀胱은 津液의 腑다. 그 經脈은 足少陰이고 足少陰은 腎의 經脈이다. 足太陽과 表裏가 된다. 足太陽은 膀胱의 經脈이다. 그것의 脈狀은 沈이고, 沈脈은 腎脈의 대표적인 형상이다. 그것의 相은 秋三月, 가을에는 金氣가 旺盛하여 水의 相이 된다. 그것의 王은 冬三月,廢는 春三月,囚는 夏三月, 그것의 死는 季夏六月이다. 그것의 王

日은 壬癸日이고 王時는 亥時에서 子時까지이다. 그것의 困日은 丙丁日이고 困時는 巳時에서 午時사이이다. 그것의 死日은 戊己日이고 死時는 辰時와 未時이다.

그것의 神은 志이고, 腎이 간직하는 것은 志다. 그것이 主宰하는 것은 液이고, 기르는 것은 骨이고, 徵候는 귀에 나타나고, 소리는 신음, 色은 黑色, 냄새는 腐臭, 體液은 唾, 맛은 鹹味, 좋아하는 맛은 酸味, 싫어하는 맛은 甘味이다.

腎俞는 第 十四椎 아래에 있고 募穴은 京門穴이다. 膀胱俞는 第 十九椎 아래에 있고 募穴은 中極穴이다. 橫骨穴 위의 一寸으로 臍下 五寸 앞의 들어간 곳에 있다.

이상은 새로 撰集한 것이다.

第 2章 腎의 性質 및 脈狀과 治法 禁忌

【原文】

腎者는 北方水니 萬物之所藏하야 冬則北方用事는 王在三時之後요 腎은 在四藏之下故로 王北方也라 萬物은 春生夏長秋收冬藏이라 百(1)蟲이 伏(2)蟄(3)하고 冬伏蟄不食之蟲이 言有百種也라 陽氣下陷하고 陰氣上昇하야 陽氣中出이나 陰氣烈(4)하야 爲霜이라 遂不上昇하야 化爲雪霜하고 猛獸는 伏蟄하며 螺蟲(5)은 匿(6)藏이라 陽氣下陷者는 謂降於土中也라 其氣猶越(7)而昇出이나 陰氣在上하야 寒盛하니 陽氣雖昇出而不能自致하야 因而化作霜雪이라 或謂陽氣中出是十月則霜降(8)이라하니라 猛獸伏蟄者는 蓋謂龍蛇가(9) 冬時而潛(10)處요 螺(11)蟲(1)은 無毛甲(12)者니 得寒에 皆伏蟄하야 逐(13)陽氣所在하야 如此避(14)冰霜하야 自溫養也라

3) "意之所存 謂之志".

黃帝內經靈樞(王冰注); 中華書局聚珍倣宋版印, 臺北, 1972, p.51

【校勘】

1) 螺蟲 ; 「周本」에 ‘螺蟲’으로 되어 있다. 正文에 ‘螺蟲’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螺蟲’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註釋】

- (1) 百 ; 衆多, 모든 백
- (2) 伏 ; 匿藏, 숨길 복
- (3) 伏蟄(복집) ; 蟄伏. 벌레 따위가 겨울 동안 땅 속에 틀어박힘. * 蟄 ; 藏也, 숨을 칩
- (4) 烈 ; 暴也, 사나울 렬
- (5) 螺蟲(과충) ; 가는 허리를 가진 벌의 일종이다. 여기서는 작은 蟲類를 가르킨다.4) * 螺 ; 螺贏, 나나니벌 과
- (6) 匿 ; 隱也, 숨길 익
- (7) 越 ; 踰也, 넘을 월
- (8) 霜降(상강) ; 二十四節氣의 하나로 秋分과 立冬 사이에 있는 節氣이다.
- (9) 龍蛇(용사) ; 용과 뱀. 여기서는 과충류이다.
- (10) 潛 ; 藏也, 감출 장
- (11) 螺 ; 소라 나
- (12) 甲 ; 甲介, 껍질 갑
- (13) 逐 ; 從也, 뒤따를 축
- (14) 避 ; 迴避, 피할 피

【國譯】

腎은 北方의 水에 속하기 때문에 萬物이 간직되는 시기여서 겨울이 北方에서 주도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뒤에 왕성하기 때문이고 腎은 四臟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北方에 해당하는 부위에서 旺盛하다. 萬物은 봄에 發生하고 여름에 成長하고

가을에 收斂하고 겨울에 閉藏한다. 온갖 蟲類가 冬眠하고 겨울에 먹지 않고 동면하는 벌레가 百種 정도 된다고 말한 것이다. 陽氣는 아래로 빠져들고 陰氣는 上昇하여 陽氣가 땅속에서 나오나 陰氣가 強烈하여 서리가 된다. 陽氣가 上昇하지 못하여 變化하여 눈과 서리가 되고 猛獸가 冬眠하며 작은 蟲類가 숨는다. 陽氣가 下陷한다는 것은 陽氣가 땅속으로 내려간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그 氣가 오히려 넘쳐 위로 나오나 陰氣가 위에 있어 寒氣가 세차니 陽氣가 비록 땅속에서 올라오나 스스로 表面에 이를 수 없어 이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變化하여 서리와 눈이 된다. 혹은 陽氣가 땅 속에서 나오는 것은 十月 곧 霜降임을 말한 것이다. 猛獸가 冬眠한다는 것은 대개 龍蛇가 겨울이 되어 은신처에 잠복한다는 것을 이른다. 螺蟲은 털과 껍질이 없는 것이니 추워지면 모두 숨어 陽氣가 있는 곳으로 쫓아가서 이처럼 얼음과 서리를 피하여 스스로 따뜻하게 길러주는 것이다.

【原文】

其脈은 爲沈이니 沈은 爲陰이요 在裏라 不可發汗이니 發則螺蟲出하야 見其霜雪이라 陽氣在下 故로 冬脈沈하야 溫養於藏府하니 此爲裏實而表虛나 復從外發其汗하면 此爲逆治니 非其法也라 猶百蟲伏蟄之時에 而反出土하야 見於冰霜하면 必死不疑니 逆治者死가 此之謂也라

陰氣在表하고 陽氣在藏하니 慎(1)不可下요 下之者傷脾하야 脾土弱即水氣妄行이라 陽氣在下하야 溫養諸藏 故로 不可下也라 下之既損於陽氣而脾胃復傷이라 土以防水나 而今反傷之 故로 令水得盈溢而妄行也라 下之者는 如魚出水요 蛾入湯(2)이라 言治病逆則殺人이 如魚出水하고 蛾入湯火之中이니 立

4) “螺蟲: 一種細腰蜂. 此泛之小蟲”

沈炎南 等; 脈經校注,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1, p.91

(3) 死라

重(4)客在裏니 慎不可熏(5)이요 熏之면 逆客하야 其息則喘이라 重客者는 猶陽氣也 重者는 尊重之貌也라 陽位尊(6)處於上이나 今一時在下요 非其常所故로 言客也라 熏은 謂燒鍼(7)及以湯火之輩로 熏發其汗이라 如此則客熱이 從外入하야 與陽氣相薄하니 是爲逆也라 氣上熏胸中 故로 令喘息이라 無(8)持(9)客熱이니 令口爛(10)瘡이라 無持者는 無以湯火로 發熏其汗也라 熏之則火氣入裏하야 爲客熱 故로 令其口生瘡이라

【註釋】

- (1) 慎 ; 謹也, 삼갈 신
- (2) 湯 ; 끓을 탕
- (3) 立 ; 速意, 곧 립
- (4) 重 ; 貴也, 귀엽게 여길 중
- (5) 熏 ; 灼也, 지질 훈
- (6) 尊 ; 高稱, 높힐 존

(7) 燒針(소침) ; 火針. 金屬針의 끝을 불로 달군 후 人體의 一定部位의 皮下組織에 刺針한 후 迅速히 發針하는 刺針法이다.

- (8) 無 ; 勿也, 말 무
- (9) 持 ; 扶助, 도울 지
- (10) 爛 ; 過熟, 물크러질 난

【國譯】

腎의 脈은 沈이니 沈脈은 陰에 속하고 病이 裏에 있다. 發汗시키면 안 되니 發汗시키는 것은 冬眠해야할 蝶蟲이 땅속에서 나와 서리와 눈을 만나게 되는 것과 같다. 陽氣는 아래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脈狀이 沈하여 臟腑를 溫養하니 이것은 裏는 實하고 表는 虛한 것이나 다시 외부로 그 汗을 발산시키면 이는 逆治가 되니 그 治法은 잘못된 것이다. 마치 온갖 蟲類가 冬眠하는 시기에 반대로 땅으로 나와 얼음과 서리를

만나면 반드시 죽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과 같다. 逆治하면 죽는다는 것이 이것을 말한 것이다.

陰氣는 表에 있고 陽氣는 臟에 있으니 절대로 下法을 쓰지 말아야 하고 下法을 쓰면 脾가 傷하여 脾土가 弱해져서 곧 水氣가 滯부로 運行한다. 陽氣는 아래 있어 모든 臟을 따뜻하게 길러주기 때문에 下法을 써서는 안 된다. 下法을 쓰면 이미 陽氣가 손상되고 脾胃가 다시 傷한다. 土는 水를 防禦하나 이제 도리어 土가 損傷되었기 때문에 水가 차서 흘러 넘쳐서 滯부로 運行한다. 下法을 쓰는 것은 마치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고 나방이 뜨거운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病을 치료하는 것이 잘못 되면 사람을 죽이는 것이 마치 물고기가 물에서 나오고 나방이 뜨거운 불 속으로 들어가 곧 죽게 되는 것과 같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귀중한 손님 즉 陽氣가 裏部에 있으니 절대로 熏法을 써서는 안 된다. 熏法을 쓰면 客인 陽氣를 거슬러서 喘息이 생긴다. 重客은 陽氣와 같고 重은 尊重하는 모양이다. 陽의 위치는 높아 위에 있으나 지금 一時로 아래에 있고 평상시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客이라고 말한 것이다. 熏은 燒針과 湯火의 무리로서 熏하여 汗을 내는 것을 이른다. 이와 같으면 客熱이 외부로부터 들어와서 陽氣와 서로 부딪치니 이것은 逆이 된다. 氣가 위로 올라가 胸中을 熏하기 때문에 喘息이 발생한다. 客熱을 돕지 말아야 하니 客熱을 조장하면 口瘡이 발생한다. 無持는 湯火로써 熏蒸하여 汗을 發散시키지 않는 것이다. 熏法을 쓰면 火氣가 속으로 들어가 客熱이 되기 때문에 입안에 瘡瘍이 발생한다.

【原文】

陰脈且解면 血散不通하여 正陽遂厥(1)하고 陰不往從이라 血行脈中하고 氣行脈外하여 五十周而復會하여 如環(2)之無端(3)也라 血은 爲陰이요 氣는 爲陽이니 相須而行이라 發其汗이면 使陰陽離別하여 脈爲解散하고 血不得通이라 厥者는 逆也니 謂陽氣逆而不復相朝使라 治病失所 故로 陰陽錯(4)逆이니 可不愼也리요 客熱이 狂(5)入하면 內爲結胸(6)이라 陰陽錯亂하여 外熱狂入하여 留結胸中也라 脾氣遂弱하면 清澁(7)痢通이라 脾主水穀하니 其氣微弱하면 水穀不化하여 下痢不息(8)이라 清者는 厠(9)也니 澁從水道出이나 而反清澁者는 是謂下痢至厠也라

右는 四時經이라

【註釋】

- (1) 厥 ; 氣가 아래에서 위로 逆行하는 것이다. * 厥; 上氣, 상기 쥔
- (2) 環 ; 玉環, 옥고리 환
- (3) 端 ; 末也, 끝 단
- (4) 錯 ; 乖也, 어긋날 착
- (5) 狂 ; 사나울 광
- (6) 結胸(결흉) ; 邪氣가 가슴속에 몰려서 명치 밑이 그득하고 아프며 만지면 뜬뜬한 느낌이 있는 證.
- (7) 清澁(청수) ; 大便이 마치 오줌처럼 淸稀한 것을 말한다. 淸은 罔과 通하니 뒷간이다. 여기서는 大便을 가르킨다⁵⁾. * 澁; 溺謂之澁, 오줌 수
- (8) 息 ; 止也, 그칠 식
- (9) 厠 ; 溷也, 뒷간 측

【國譯】

陰脈이 또 解散되면 血이 흩어져 通하지 않아서 陽이 마침내 거스르게 되어 陰이 쫓아가지 않는다. 血은 脈管 속을 運行하고 氣는 脈管의 밖을 運行하여 五十回 돌아서 다시 모여서 고리가 끝이 없는 것과 같다. 血은 陰이고 氣는 陽이어서 서로 도우면서 運行한다. 汗을 發散시키면 陰陽이 떨어지게 되어 脈이 解散되고 血이 通하지 않는다. 厥은 거스르는 것이니 陽氣가 거슬러 올라 다시 서로 모여서 부리지 못하는 것을 이른다. 病을 치료하는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陰陽이 어긋나고 거스르게 되니 愼重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客熱이 猛烈하게 들어오면 내부에서 結胸이 발생한다. 陰陽이 뒤섞이고 어지러워서 외부의 熱이 猛烈히 들어와서 胸中에 머물러 맺힌다. 脾氣가 마침내 弱해지면 소변처럼 맑고 희박한 大便과 下痢가 그치지 않는다. 脾는 水穀을 주관하니 그 氣가 微弱하면 水穀이 소화되지 않아서 下痢가 그치지 않는다. 淸은 뒷간이니 소변은 水道를 따라 나오나 도리어 淸澁라고 한 것은 泄瀉가 나서 뒷간에 가는 것을 말한다.

이상은 四時經의 글이다.

第3章 겨울철 脈의 太過 不及에 따른 病證

【原文】

黃帝問曰 冬脈如營(1)은 何如而營고 岐伯이 對曰 冬脈은 腎也요 北方水也니 萬物之所以合藏(1)이라 故로 其氣來沈以搏(2)(2)이니 甲乙에 作濡라 故로 曰營이니 反此者는 病이니다

黃帝曰 何如而反고 岐伯이 曰 其氣來如彈石(3)者를 此謂太過(3)니 病在外요 其去如數者(4)를 此謂不及이니 病在中이니다

5) “淸澁; 大便淸稀如澁. 淸通罔 厠也, 此指大便”. 上揭書, p.91.

帝曰 冬脈太過與不及의 其病은 皆如何오 岐伯이 曰太過則令人으로 解休(4)하며 脊脈痛而少氣(5)不欲言하고 不及則令人으로 心懸(6)하며 如病飢하며 耳少 (7)中清5)(8) 하고 脊中痛6)하고 少腹滿하고 小便黃赤7) 하나라

【校勘】

1) 合藏 ; 「周本」엔 ‘舍藏’으로 되어 있는데, 뜻이 더 낫다.

2) 故其氣來沈以搏 ; 「周本」엔 ‘故其脈來沈而搏’으로 되어 있다. 『甲乙·卷四第一』엔 ‘故其氣來沈以濡’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沈 등이 “『素問·玉機眞藏論』 新校正에 ‘『甲乙經』을 살펴보건대, 搏字가 濡字로 되어있으니 『甲乙經』을 따라 濡字로 해야한다. 어찌서 인가? 脈이 沈하면서 濡한 것은, 濡字는 옛날의 軟字니, 겨울철의 보통의 조화로 온 脈狀이다. 만약 沈하면서 손가락을 치는 것은 겨울철의 太過한 脈狀이기 때문에 『甲乙經』에 濡字라고 한 것을 따라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고 한 것을 참고할만하다6).”고 하였고, 本篇 第 5章 腎의 五邪脈에 “其脈沈濡而滑 平脈”이라고 했으므로 ‘搏’字를 ‘濡’字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此謂太過 ; 「周本」엔 ‘此爲太過’로 되어 있다.

4) 其去如數者 ; 『太素·卷十四 四時脈形』엔 ‘其去如毛者’로 되어 있는데, 뜻이 더 낫다.

5) 耳少 中清 ; 「周本」, 『校注』엔 ‘眇中清’으로 되어 있다.

6) 脊中痛 ; 『素問·玉機眞藏論』엔 없다.

6) “『素問·玉機眞藏論』 新校正云: ‘按『甲乙經』 搏字爲濡, 當從『甲乙經』爲濡. 何以言之? 脈沈而濡, 濡古軟字, 乃冬脈之平調脈. 若沈而搏擊於手, 則冬脈之太過脈也. 故言當從『甲乙經』濡字’ 可參”.
上掲書, p.12

7) 小便黃赤 ; 「玉機眞藏論」엔 ‘小便變’으로 되어 있다.

【註釋】

(1) 營 ; 營脈. 營은 脈이 沈한 것이 營壘가 깊이 숨겨져 있는 것과 같은 것을 가 르키는데 沈脈의 異名이다7). * 營 ; 軍壘, 진영 영

(2) 搏(박) ; 搏脈. 搏脈은 大하면서 強한 脈이다8).

(3) 彈石(탄석) ; 七怪脈의 일종. 脈象이 沈實하여 마치 手指로 돌을 튀기는 듯한 脈象이다.

(4) 解休(해역) ; 解는 懈怠, 休은 困倦을 말함. 이는 몸이 피로를 느끼고 肢體骨節이 힘이 없는 증상을 말함.

(5) 少氣(소기) ; 들이마시고 내쉬는 공기가 적으며 약하게 호흡하는 것으로 中氣가 부족하거나 肺와 腎이 虛하여 생긴다.

(6) 心懸(심현) ; 명치끝에 무엇이 매달린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증상. * 懸 ; 繫也, 매달 현

(7) 耳少 ; 眇俗字. * 眇 ; 허구리 묘

(8) 清 ; 寒也, 찰 청

【國譯】

黃帝께서 물으시기를, 겨울철의 脈象이 營한 듯한 것은 어찌서 營하다고 합니까? 岐伯이 대답하기를 겨울철의 脈은 腎에 속하고 北方水에 속하니 萬物이 모여 저장되기 때문에 그 脈氣 오는 것이 沈하면서 濡(『甲乙』에는 ‘濡’로 되어 있다)하므로 營이라 하니 이와 다르면 病脈입니다.

7) “營 此指脈沈如營壘深藏”.
上掲書, p.92

8) “搏者 且大且強也”.
李仲梓; 診家正眼, 中國書店, 北京, 1987, 診家正眼 卷二 p.35

黃帝께서 물으시기를, 어떠한 것이 다른 것입니까? 岐伯이 대답하기를, 그 脈氣 오는 것이 彈石과 같은 것을 太過라 하니 病이 외부에 있고, 그 脈氣 가는 것이 數한 듯 한 것을 不及이라 하니 病이 내부에 있는 것입니다.

黃帝께서 물으시기를, 겨울철의 脈이 太過하거나 不及할 때에 그 病의 증상은 모두 어떠한가? 岐伯이 대답하기를, 太過하면 解體이 발생하고 脊柱가 아프며 少氣로 말하려 하지 않고, 不及하면 虛飢病에 걸린 듯 한 心懸症이 발생하여 허구리가 淸冷하고 脊椎가 아프고 少腹이 脹滿하고 小便이 黃赤하게 됩니다.

【考察】

本章의 내용은 『素問·玉機眞藏論』에서 인용한 것이다.

第4章 腎의 平脈, 病脈, 死脈

【原文】

腎脈1)來에 喘喘(1)累累(2)如鉤(3)하야 按之而堅을 曰腎平이요 冬엔 以胃氣爲本하니 腎脈2)來에 如引葛(4)하야 按之益堅을 曰腎病이요 腎脈3)來에 發(5)如奪索(6)하고 辟辟如彈石(7)을 曰腎死라

眞腎脈至는 搏而絶(8)하고 如以指彈石하야 辟辟然(4)하고 色黃黑(5)不澤하고 毛折하면 乃死라

冬에 胃微石을 曰平이요 石多胃少를 曰腎病이요 但石無胃를 曰死라 石而有鉤를 曰夏病이요 鉤甚을 曰今病이라

凡人은 以水穀으로 爲本 故로 人絶水穀則死요 脈無胃氣도 亦死라 所謂無胃氣者는 但得眞藏脈하고 不得胃氣也니 所謂脈不得胃氣

者는 肝不絃하고 腎不石也(6)라

【校勘】

1) 腎脈 ; 『素問·平人氣象論』엔 ‘平腎脈’으로 되어 있다.

2) 腎脈 ; 「平人氣象論」엔 ‘病腎脈’으로 되어 있다.

3) 腎脈 ; 「平人氣象論」엔 ‘死腎脈’으로 되어 있다.

4) 如以指彈石辟辟然 ; 「廣本」엔 ‘如以石投諸水’로 되어 있고, 「朱本」, 「張本」엔 ‘如以指彈石然’으로 되어 있다.

5) 色黃黑 ; 「周本」엔 ‘色黑黃’으로 되어 있다.

6) 凡人以水穀爲本 故人絶水穀則死 脈無胃氣亦死 所謂無胃氣者 但得眞藏脈 不得胃氣也 所謂脈不得胃氣者 肝不絃 腎不石也; 「錢本」과 「周本」엔 ‘冬胃微石曰平 …… 曰今病’의 注로 되어 있으며 ‘肝不絃 腎不石也’가 ‘肝但弦 心但鉤 胃但弱 肺但毛 腎但石也’로 되어 있다.

【註釋】

(1) 喘喘 ; 急疾한 모양이다⁹⁾. * 喘 ; 疾息, 헐떡거릴 친

(2) 累累 ; 물건이 이어 나가는 모양¹⁰⁾. * 累 ; 縈也, 엮힐 루

(3) 鉤(구) ; 鉤脈, 鉤脈은 앞은 구부러지고 뒤는 들러 낚시 끝이 구부러진 형상과 같은 것이다. 옛날에 脈을 論할 때에 鉤脈은 언급하였으나 洪脈은 언급하지 않았으니 옛날의 鉤脈은 지금의 洪脈이다¹¹⁾.

9) “喘喘: 張志聰『素問集注平人氣象論』注 急疾貌”.

沈炎南 等; 脈經校注,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1, p.73

10) 都金錄: 素問研究集成 第二卷, 平人氣象論, 素問研究集成刊行委員會, 益山, 2001, p.228.

11) “鉤 脈來前曲後踞 如操帶鉤也 上古論脈 稱鉤而不稱洪 古之鉤 今之

(4) 葛 ; 蔓生絺綌草, 쑤 갈

(5) 發 ; 舒也, 펼 발

(6) 索 ; 草有莖葉 可作繩索, 새끼 삭

(7) 辟辟如彈石(벽벽여탄석) ; 辟辟은 堅硬한 모양이다. 辟辟如彈石은 딱딱하고 實하여 조금도 부드럽고 조화롭지 않은 脈狀을 形容한 것이다¹²⁾. * 辟 ; 策勵, 책찍질 할 벽 * 彈 ; 行丸, 통길 탄

(8) 絕(절) ; 懸絶의 뜻으로 현격하게 다르다는 뜻이다¹³⁾. * 絶 ; 甚也, 심할 절

【國譯】

腎의 脈氣가 올 때 빠르게 박동하면서 이어서 鈎脈과 비슷하여 누르면 堅固한 것을 腎의 平脈이라 한다. 겨울엔 胃氣로 根本을 삼으니 腎의 脈氣가 올 때 취녕쿨을 잡아당기는 것 같아서 누를수록 더욱 堅固한 것을 腎의 病脈이라 하고 腎의 脈氣가 올 때 새끼줄을 서로 잡아당기는 것 같고 손가락으로 돌을 튀기는 듯 堅固한 것을 腎의 死脈이라 합니다.

腎의 眞藏脈이 이르는 것이 손끝을 매우 甚하게 搏擊하고 손가락으로 돌을 튀기는 것과 같아서 堅固하고 顏色이 黑色에 黃色을 겸하고서 윤택하지 않고 모발이 부러지면 죽는다.

겨울의 脈象에 胃氣가 있어서 微石한 것을 平脈이라 하고 石脈이 많고 胃氣가 적은 것을 腎病脈이라 하고 단지 石脈만 나타나고 胃氣가 없는 것을 死脈이라 한다. 石脈

洪乎”.

朴 昞: 譯釋 脈語, 大星文化社, 서울, 1997, p.34

12) “辟辟如彈石: 辟辟, 堅硬貌. 辟辟如彈石, 此處形容硬實, 毫不柔和的脈象”.

福州市人民醫院: 脈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4, p.139

13) 鄭憲堂: 素問研究集成 第二卷. 玉機眞藏論, 素問研究集成刊行委員會, 益山, 2001, p.282

에 鈎脈을 겸하면 여름에 이르러 病이 발생하고 鈎甚하면 방금 발생한 病이다.

무릇 사람은 水穀으로 根本을 삼기 때문에 사람이 水穀을 끊으면 죽게 되고 脈에 胃氣가 없어도 죽는다. 소위 胃氣가 없다는 것은 단지 眞藏脈만이 나타나고 胃氣가 없는 것이니 脈에 胃氣가 없다고 하는 것은 肝脈이 弦하지 않고 腎脈이 石하지 않는 것이다.

【考察】

‘腎脈來 喘喘累累如鈎 …… 曰腎死’와 ‘冬胃微石曰平 …… 曰今病’은 『素問·平人氣象論』에서, ‘眞腎脈至 搏而絶 …… 毛折乃死’는 『素問·玉機眞藏論』에서 拔萃 引用 한 것이다.

第5章 腎의 五邪脈

【原文】

腎藏精하고 精舍志라 盛怒而不止則傷志하고 傷志則善忘其前言하고 腰脊痛¹⁾으로 不可以俛(1)仰(2)屈伸하고 毛悴色夭하니 死于季夏라

冬에 腎水王하니 其脈이 沈濡而滑을 曰平脈이요 反得大而緩者는 是脾之乘腎이요 土之刻水²⁾니 爲賊邪요 大逆이니 十死不治라 一本에 云 日月年數至一이니 忌戊己라 反得絃細而長者는 是肝之乘腎이요 子之扶母요 爲實邪니 雖病이나 自愈라 反得浮濇而短者는 千金에 作微라 是肺之乘腎이요 母之歸子요 爲虛邪니 雖病이나 易治라 反得洪大而散者는 千金에 作浮大而洪이라 是心之乘腎이요 火之陵水요 爲微邪니 雖病이나 卽差라

腎脈이 沈細而緊하고 再至를 曰平이요 三至를 曰離經이니 病이요 四至를 脫精이요 五至를 死요 六至를 命盡이라 足少陰脈也라

【校勘】

1) 腰脊痛 ; 『靈樞·本神』엔 ‘腰脊’으로 되어 있다.

2) 是脾之乘腎, 土之剋水 ; 『繆本』엔 ‘是脾之虛, 言土之剋水’로 되어 있다.

【註釋】

(1) 俛 ; 頰首, 구부릴 면

(2) 仰 ; 舉首望, 우러러볼 양

【國譯】

腎은 精을 간직하고 精에는 志가 깃든다. 세차게 怒하나 그치지 않으면 志를 傷하고 志를 傷하면 그 전에 한 말을 잘 잊어버리고 腰脊이 아파서 俛仰과 屈伸을 할 수 없고 毛髮과 顏色이 까칠하고 윤택하지 않으니 季夏에 죽는다.

겨울철에 腎水가 旺盛하니 그 脈이 沈濡하면서 滑한 것을 平脈이라 하고 도리어 脈狀이 大하면서 緩한 것은 脾가 腎을 乘한 것이고 土가 水를 克한 것이니 賊邪가 되고 크게 거스른 것이니 치료할 수 없어 죽게 된다. 어떤 觀本에는 “日月年數至一 忌戊己”로 되어있다. 도리어 脈狀이 弦細하면서 長한 것은 肝이 腎을 乘한 것이고 子가 母를 부족한 것이고 實邪가 되니 비록 病이 들었으나 저절로 낫는다. 도리어 脈狀이 浮濇하면서 短한 것은 『千金』에는 ‘微’로 되어 있다. 肺가 腎을 乘한 것이고 母가 子에게 돌아간 것이고 虛邪가 되니 비록 病이 들었으나 쉽게 치료된다. 도리어 脈狀이 洪大하면서 散한 것은 『千金』에는 ‘浮大而洪’으로 되어 있다. 心이 腎을 乘한 것이고 火가 水를 壼신여긴 것이고 微邪가 되니 비록 病이 들었으나 곧 낫는다.

腎脈이 沈細하면서 緊하고 一呼에 두 번

搏動하는 것을 平脈, 一呼에 세 번 搏動하는 것을 離經脈이라 하니 病이 발생하는 것이고, 네 번이면 脫精, 다섯 번이면 死脈, 여섯 번이면 命盡이라 한다. 이것은 足少陰의 脈狀들이다.

【考察】

‘腎藏精 精舍志’와 ‘盛怒而不止則傷志 …… 毛悴色夭 死于季夏’는 『靈樞·本神』에서 발췌 인용한 것이다.

第 6章 腎의 五邪脈 病證과 死證

【原文】

腎脈이 急甚하면 爲骨痿1)(1)癩疾이요 微急하면 爲奔豚(2)으로 沈厥(3)하고 足不收하여 不得前後라 緩甚하면 爲折脊이요 微緩하면 爲洞下(4)니 洞下者는 食不化하고 入咽還(5)出(2)이라 大甚하면 爲陰痿(6)요 微大하면 爲石水(7)하여 起臍下(3)以至小腹腫(4)하여 垂垂然(5)(8)하고 上至胃管하니 死不治라 小甚하면 爲洞泄(9)이요 微小하면 爲消瘵이라 滑甚하면 爲癰癩(6)(10)요 微滑하면 爲骨痿로 坐不能起하고 目無所見(7)하고 視見黑花(8)(11)라 濇甚하면 爲大癰(12)이요 微濇하면 爲不月水(9)(13)하고 沈疔(14)라

足少陰氣絶則骨枯라 少陰者는 冬脈也니 伏行而濡(10)(15)骨髓者也라 故骨不濡則肉不能著骨也요 骨肉이 不相親則肉濡而却(16)하고 肉濡而却 故로 齒長(17)而垢(18)하고 難經에 垢字를 作枯라 髮無澤하니 髮無澤者는 骨先死라 戊篤己死니 土勝水也라

腎死藏은 浮之堅하고 按之亂如轉圓(19)하며 益下入尺中者는 死라

右는 素問鍼經張仲景이라

【校勘】

- 1) 爲骨痿 ; 『靈樞·邪氣臟腑病形』엔 ‘爲骨’로 되어 있다.
- 2) 微緩爲洞下 洞下者 食不化 入咽還出 ; 「邪氣臟腑病形」엔 ‘微緩爲洞 洞者 食不化 下噎逐出’로 되어 있다.
- 3) 起臍下 ; 「邪氣臟腑病形」엔 ‘起臍已下’로 되어 있다.
- 4) 小腹腫 ; 「邪氣臟腑病形」엔 ‘小腹’으로 되어 있다.
- 5) 垂垂然 ; 「邪氣臟腑病形」엔 ‘腫腫然’으로 되어 있다.
- 6) 癢癢 ; 「邪氣臟腑病形」엔 ‘癢癢’로 되어 있다.
- 7) 目無所見 ; 「邪氣臟腑病形」엔 ‘起則目無所見’으로 되어 있다.
- 8) 視見黑花 ; 「邪氣臟腑病形」엔 이 구절이 없다.
- 9) 爲不月水 ; 「邪氣臟腑病形」엔 ‘爲不月’로 되어 있다.
- 10) 伏行而濡 ; 「繆本」엔 ‘伏行而濡’으로 되어 있다.

【註釋】

(1) 骨痿(골위) ;痿證의 하나이다. 腰背가 시큰거리고 軟弱해서 똑바로 서기가 어렵고, 下肢가 萎弱하고 힘이 없으며, 面色이 暗黑하고 치아가 마르는 症이다.

(2) 奔豚(분돈) ; 五積의 하나이며, 腎의 積에 속한다. 발작적으로 下腹의 氣가 가슴으로 上衝하여 咽喉로 도달해서 腹部가 쥐어짜 듯이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며 頭痛 目眩하고 心悸 易驚하며 煩燥 不安하고 發作이 지난 후에는 평소와 같다. 때로는 寒熱往來 혹은 膿을 吐하는 症狀을 수반하기도 한다. 本病은 발작시에 胸腹에

작은 돼지가 달리는 것과 같으므로 이렇게 부른 것이다.

(3) 沈厥(침궤) ; 足部가 沈重하고 厥冷한 病證을 가르킨다¹⁴⁾.

(4) 洞 ; 貫也, 꿰뚫을 통

(5) 還 ; 卽也, 바로 선

(6) 陰痿(음위) ; 陰莖이 勃起되지 않는 病症을 말한다.

(7) 石水(석수) ; 水腫證候의 하나이다. 腹部가 脹滿하지만 喘息하지 않고 혹은 脇下가 땅기며 脹痛하고 水腫이 腹部에 偏在하며 脈象이 沈한 病症이다.

(8) 垂垂然(수수연) ; 아래로 늘어뜨린 모양이다¹⁵⁾.

(9) 洞泄(통설) ; 음식을 먹으면 곧바로 소화되지 않은 것을 물 붓는 것처럼 심하게 설사하며 몸은 무겁고 배가 끓는 病症이다.

(10) 癢癢(용퇴) ; 疝症의 하나. 아랫배에서 고환까지 당기면서 아프고 오줌이 잘 나 오지 않는 症을 말한다.

(11) 黑花(흑화) ;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이다.

(12) 癰 ; 몸의 表面과 臟腑가 끓는 病症이다. * 癰 ; 腫也, 종기 용

(13) 月水(월수) ; 月經을 가르킨다.

(14) 沈痔(침치) ; 沈은 深을 말한다. 沈痔는 深部の 痔疾인 內痔를 가리킨다¹⁶⁾.

(15) 濡 ; 漬也, 적실 유

(16) 肉濡而却(육연이각) ; 肌肉이 軟弱하고 萎縮된다는 뜻으로 濡는 軟弱이고, 却은 退이니 退縮과 萎縮의 意味가 있다¹⁷⁾. *

14) “沈厥: 此指足部沈重厥冷的病證” .

沈炎南 等; 脈經校注,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1, p.95

15) “垂垂然 下垂貌” .

福州市人民醫院; 脈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4, p.142.

16) “沈痔: 沈深也. 沈痔指深部的痔即內痔” .

上揭書, p.142.

濡 ; 柔也, 부드러울 연 * 却 ; 退也, 물리칠 각

(17) 齒長(치장) ; 잇몸이 萎縮되어 齒牙가 外觀上 相對的으로 길어 보이는 것을 가리킨다.18).

(18) 垢 ; 塵滓, 때 구

(19) 圓(원) ; 『校釋』에 ‘탄환(丸)’으로 어역하였다19).

【國譯】

腎脈이 急甚하면 骨痿와 癩疾이 발생하고, 微急하면 奔豚病으로 沈厥하고 다리를 거둘 수 없어서 앞뒤로 갈 수가 없다. 緩甚하면 脊柱가 끊어지는 것 같고, 微緩하면 洞下가 발생하니 洞下라는 것은 飲食이 消化되지 않고 음식을 넘기자마자 이어서 설사하는 것이다. 大甚하면 陰痿가 발생하고, 微大하면 石水가 발생하여 배꼽 아래서부터 小腹에 이르기까지 부어서 아래로 처지는 感이 있고 위로 胃脘까지 이르니 치료할 수 없어 죽는다. 小甚하면 洞泄이 발생하고, 微小하면 消瘕이 발생한다. 滑甚하면 癰癩가 발생하고, 微滑하면 骨痿가 발생하여 앉아서 일어날 수가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눈에 黑花가 나타난다. 澹甚하면 大癰이 발생하고, 微澹하면 月經을 하지 않고 內痔가 발생한다.

足少陰經의 氣가 끊어지면 骨이 마른다. 少陰은 겨울철의 脈이니 잠복하여 운행하면서 骨髓를 濡養한다. 그러므로 骨이 濡養되지 않으면 肌肉이 骨에 붙을 수 없고, 骨肉

이 서로 붙어 있지 않으면 肌肉이 軟弱하면서 萎縮되고 肌肉이 軟弱하면서 萎縮되기 때문에 잇몸이 萎縮되어 齒牙가 들어나고 齒垢가 끼고 『難經』에는 ‘垢’字가 ‘枯’字로 되어 있다. 毛髮에 光澤이 없으니 毛髮에 光澤이 없으면 骨氣가 먼저 죽는 것이다. 戊日에는 危篤하고 己日에 죽게 되니 土氣가 水氣를 勝한 것이다.

腎臟의 死脈은 浮取하면 堅固하고 손가락으로 누르면 탄환이 구르는 것처럼 어지럽고 더욱 무겁게 누르면 脈氣가 尺中으로 들어가는 것은 죽는다.

이상은 『素問』, 『針經』, 張仲景의 글에서 인용한 것이다.

【考察】

‘腎脈急甚 爲骨痿癩疾 …… 爲不月水 沈痔’는 『靈樞邪氣臟腑病形』에서, ‘足少陰氣絕則骨枯 …… 土勝水也’는 『靈樞經脈』에서, ‘腎死藏 浮之堅 …… 益下入尺中者死’는 『金匱要略』 「五臟風寒積聚病脈證併治第十一」에서 拔萃 引用한 것이다.

‘微緩爲洞下 洞下者 食不化 入咽還出’에 대하여 『校釋』은 “微緩하면 음식이 소화되지 않고 泄瀉를 하고 음식을 먹으면 토한다20.”고 어역하였고, 楊維傑은 “微緩하면 洞泄이 발생하고 洞泄의 증상은 음식물을 삼킨 이후에 소화를 거치지 않고 바로 대변으로 배출되는 것이다21.”고 하여 『校釋』의

<表2> 五臟의 平脈

	肝	心	脾	肺	腎
平脈	絃細而長	洪大而散	大而緩	浮濇而短	沈濡而滑

17) “肉濡而却: 肌肉軟弱萎縮. 濡軟弱也, 却退也, 此有退縮萎縮之意”. 沈炎南 等; 脈經校注,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1, p.95.

18) “齒長: 指牙根萎縮, 因而牙齒在外觀上相對變得較長”. 上揭書, p.95.

19) “中取亂似轉丸”. 福州市人民醫院; 脈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4, p.143

20) “微緩爲飲食不消 下爲泄利 食入吐出”. 上揭書, p.142

21) “微緩是洞泄 這種洞泄的症狀 也就是食物下咽之後 未經消化 即從大便排出”.

내용과 상반된다. ‘食不化 入咽還出’은 洞下의 증상이므로 ‘入咽還出’을 楊維傑의 說를 따라 ‘음식을 먹자마자 바로 설사한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IV. 總括 및 結語

五臟의 平脈을 총괄하면 表2와 같다.

『醫學入門』에 “十變은 心脈이 急甚하면 肝邪가 心에, 微急하면 膽邪가 小腸에 침입한 것이고, 이는 五行上 心·小腸의 뒤에서 온 것이니 虛邪가 되고, 心脈이 大甚하면 心邪 自體의 病이 心에, 微大하면 小腸邪 自體의 病이 小腸에 침입한 것이니 正邪가 되고, 心脈이 緩甚하면 脾邪가 心에, 微緩하면 胃邪가 小腸에 침입한 것이고, 心·小腸의 앞에서 온 것이니 實邪가 되며, 心脈이 濇甚하면 肺邪가 心에, 微濇하면 大腸邪가 小腸에 침입한 것이고, 心·小腸이 勝하는 것에서 온 것이니 微邪가 되며, 心脈이 沈甚하면 腎邪가 心에, 微沈하면 膀胱邪가 小腸에 침입한 것이고, 이는 心·小腸이 勝하지 못하는 것에서 온 것이니 賊邪가 된다²²⁾.”고 한 것을 살펴볼 때, 본 논문에 언급된 急은 肝의, 大는 心의, 緩은 脾의, 濇은 肺의, 沈은 腎의 本현의 脈임을 알 수 있다.

臟과 季節의 相生 相剋 關係를 相王廢囚 死로 규정하였고 臟과 臟의 關係는 虛實賊 微邪로 論했다.

22) “十變 心脈急甚者 肝邪干心也 微急者 膽邪干小腸也 爲從後來者 爲虛邪 心脈大甚者 心邪自干心也 微大者 小腸邪自干小腸也 爲正邪 心脈緩甚者 脾邪干心也 微緩者 胃邪干小腸也 爲從前來者 爲實邪 心脈濇甚者 肺邪干心也 微濇者 大腸邪干小腸也 從其所勝者 爲微邪 心脈沈甚者 腎邪干心也 微沈者 膀胱邪干小腸也 是從所不勝者 爲賊邪”
李梴: 醫學入門, 大星文化社, 서울, 1990, p.429-430

第 5篇 腎膀胱部第五

第 1章 腎膀胱의 生理와 自然界와의 關係
‘腎象木’에서 ‘木’은 ‘水’字의 誤字이다.

第 2章 腎의 性質 및 脈狀과 治法 禁忌
‘螺蟲 無毛甲者 …… 自溫養也’에서 ‘螺蟲’은 ‘螺蟲’으로 바꾸어야 한다.

第 3章 거울철의 正常脈과 太過 不及에 따른 病證

‘冬脈腎也 …… 故其氣來沈以搏 故曰營 反此者病’에서 ‘故其氣來沈以搏’은 ‘故其氣來沈以濡’로 바꾸는 것이 더 타당하다.

第 4章 腎의 平脈, 病脈, 死脈

‘眞腎脈至 搏而絕 …… 毛折乃死’에서 ‘絕’은 懸絶의 뜻으로 현격하게 다르다는 뜻이다.

第 6章 腎의 五邪脈 病證과 死證

‘微緩爲洞下 洞下者 食不化 入咽還出’에서 ‘入咽還出’은 ‘음식을 먹자마자 바로 설사한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參考文獻

1. 王叔和. 脈經. 東洋醫學研究會, 大阪, 1981.
2. 王叔和. 脈經. 大學書局, 臺南, 1985.
3. 沈炎南. 脈經校注.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1.
4. 福州市人民醫院. 脈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4.
5. 吳承玉·王魯芬. 脈經. 中國醫藥科技出版社, 北京, 1999.
6. 王叔和. 脈經, 蔣力生 校注. (醫經病源診法名著集成/高文鑄 主編) 華夏出版社, 北京, 1997.
7. 王叔和. 晉王叔和脈經. 醫部全錄(第三冊), 中華民國假國立中央圖書館, 中華民國藝文印書館, 金泳出版社 影印, 서울, 1974.
8. 王叔和. 脈經, 中國醫學大成(第三冊),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7.

9. 作者未詳. 王叔和脈經. 文光圖書有限公司, 年度未詳.
10. 王 冰注. 內經素問, 臺灣中華書局, 臺北, 1992.
11. 王 冰注. 靈樞經, 臺灣中華書局, 臺北, 1972.
12.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大星文化社, 서울, 1991.
13. 鄭憲臺. 素問研究集成 第二卷. 玉機真藏論, 素問研究集成刊行委員會, 益山, 2001.
14. 都金錄. 素問研究集成 第二卷. 平人氣象論, 素問研究集成刊行委員會, 益山, 2001.
15. 任應秋. 黃帝內經章句索引,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6.
16. 楊維傑. 黃帝內經素問譯解, 樂群出 公司, 台北, 民國66.
17. 李克光 等編. 金匱要略,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9.
18. 滑 壽. 難經本義, 集文書局, 台北, 1982.
19. 華 陀. 中藏經. 江蘇科學技術出版社, 江蘇省, 1985.
20. 巢元方. 醫經病源診法名著集成 中 諸病源候論, 華夏出版社, 北京, 1997.
21. 孫思邈. 備急千 金要方. 人民衛生出版社影印, 北京, 1998.
22. 李景榮 等. 備急千金要方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8.
23. 李挺. 醫學入門, 大星文化史, 서울, 1990.
24. 大韓韓醫診斷學會. 大韓韓醫診斷學會誌(第7卷-1號), 경희문화사, 서울, 2003.
25. 朴 昶. 診斷學權輿, 大星醫學社, 서울, 2000.
26. 成百萬. 脈經의 脈形狀指下秘訣에 대한 研究, 圓光大學校 大學院, 益山, 2000.
27. 鄭鐵壽 等. 中醫診斷學, 人民衛生出版社, 台北, 1989.
28. 朴 昶. 譯釋脈語, 大星文化史, 서울, 1997.

參考辭典

1. 金赫濟, 金星元. 明文漢韓大字典, 明文堂, 서울, 1995.
2. 民衆書館編輯局. 漢韓大字典, 民衆書林, 서울, 1994.
3. 劉渡舟. 傷寒論辭典. 解放軍出版社, 北京, 1988.
4. 謝 觀. 東洋醫學大辭典. 上海商務印書館 出版, 高文社 影印, 서울, 1993.
5. 傳統醫學研究所. 韓醫學辭典. 成輔社, 서울, 2001.
6. 張二植. 大漢韓辭典. 進賢書館, 서울, 1982.
7. 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漢醫學大辭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서울, 1989.
8. 李經緯 等. 中醫大辭典.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5.